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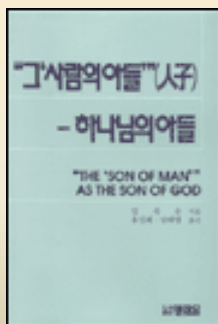
배경사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

마가복음 8:38



(참고도서: 김 세윤, “그 ‘사람의 아들’” (人子)
-하나님의 아들. 서울: 엠마오, 1992)





제13장 예수의 자기 칭호 “그 **사람의 아들**” 의 진정성

Jesus

I.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람의 아들”

- ▶ 마가복음
- ▶ 마태복음
- ▶ 누가복음
- ▶ 요한복음

II. 예수의 자기 칭호

- ▶ 세 분류
- ▶ H. Toedt의 주장과 김 세윤의 반론
- ▶ 결론





I.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람의 아들”

네 복음서에서 人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동일시되고 있는가?



1. 마가복음

Jesus

마가복음저자는 人子를 하나님의 아들로 명백히 표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

마가복음 8:38

- ▶ “아버지의 영광” 중 심판자로 오실 人子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
- ▶ 베드로의 신앙고백(8:29)과 첫 수난 예고 (8:31)가 앞에, 변화 산상 말씀이 뒤에 나옴.



1. 마가복음

Jesus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마가복음9:7)

- ▶ 마가복음 8:27~9:10 기독교적 칭호들
=>그리스도, 人子, 하나님의 아들 - 서로 연관
- ▶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후,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로 메시아 과업 이루실 것 계시.
 - 첫 수난 예고 후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아들로 선언됨.
 - 예수의 부활 때까지 세 제자가 지키라는 비밀은 人子が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 (9:9).



1. 마가복음

Jesus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62)

- ▶ 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
- ▶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이 사형에 합당하다고 결론.
- ▶ 제사장의 용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용어로는 人子.
- ▶ 人子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으로 이해됨.



1. 마가복음



Jesus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가복음2:10)

- ▶ 예수님은 용서 선언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주장으로 정당화.
- ▶ 죄 용서는 하나님 대권. 서기관들은 하나님 모독으로 간주하여 항의 (16절 이하).
- ▶ 하나님 대권 주장으로 예수님은 人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범주로 분류.



1. 마가복음



Jesus

人子は 자기가 택한 자들을 그의 도래 시에 모을 것이다.
(참조: 마가복음13:27)

- ▶ 27절 “택하신 자들” 다음에 더 나은 신약사본은 “그의”를 삽입 하여 읽음.
- ▶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막 언급하여 (20절) 人子和 하나님이 같은 범주임을 시사.
- ▶ 다른 말씀처럼 (막 1:1, 11; 9:7; 15:39등), 人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밝히 보임.



1. 마가복음



Jesus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15:39

- ▶ 마가의 예수 수난 기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의 신앙고백으로 절정.
- ▶ 마가는 “이 사람”을 人子에 상응한 사람으로 보았을 가능성.
- ▶ 예언된 수난당하는 人子가 예언성취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판명되었음 마가는 천명.



2. 마태복음

Jesus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13~20)

- 마태는 정확히 마가를 따르면서, 人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분명히 함.
- 베드로의 신앙고백문맥에서 마가의 “나를” 마태는 “인자”로 대치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고, 마가의 베드로 대답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에 마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여, 공관복음서에서 人子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확실하게 동일시.



2. 마태복음

Jesus

- ▶ 최후 심판 비유 (마 25:31-46)에서 人子는 양과 염소 분리 후 “양”들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전할 왕과 동일시. 하나님이 人子の 아버지와 동일시됨으로, 人子가 하나님의 아들과 **간접적으로** 동일시.



3. 누가복음

Jesus

- ▶ 누가도 人子の 죄용서 말씀 (눅 5:24=막 2:10)과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는 역설(눅 9:24=막 9:31) 보존.
- ▶ 누가판 산헤드린 재판 (눅 22:54-71)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가 그리스도인지 묻고, 마가와 마태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했는지 묻지 않는다. 人子が 하나님 우편에 앉으리라는 예수님 대답이 있자 재판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했다고 추론 후 묻는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완곡한 어법으로 재판관들의 추론에 동의하심으로 人子和 하나님의 아들과의 동일시함이 마가와 마태판보다 더 확실히 나타난다.



4. 요한복음

Jesus

- ▶ 제 4 복음서에서 人子は 하늘에 선재 후 내려 왔고 올라가는 자 (3:13, 16f; 6:16; 16:2; 8).
- ▶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언급되듯 (17:1) 人子の 영광도 언급 (12:23; 13:31).
- ▶ 1:49-51에서 예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나다나엘의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마가복음 14:61f.에서처럼 人子에 관한 말로 대답한 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5-16).



4. 요한복음

Jesus

- ▶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 ▶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을 인하여 그에게 심판하
- ▶ 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 5:26-27)
- ▶ 人子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하는 가장 명확한 구절.
- ▶ 人子は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신적 본성 공유: “내가 곧 그
- ▶ 라.” (요 8:28).



5. 결론 ●

Jesus

사복음서 모두 人子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

동일시함이 초대교회의 이등방정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심, 즉 예수는 人子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人子は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공관복음서 어디에서도 人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확증해주는 분명한 구절은 없다는 것 의미심장.



5. 결론

Jesus

두 칭호들의 동일시는 모두 간접적.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人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활절 이후 확신으로부터 동일시함을 만들어 냈다면 직접적 연관이 복음서에서 나와야 할 것.

동일시함의 이런 간접적 특성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발언되는 人子라는 칭호의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특성과 일치.



따라서 복음서 저자들은 人子에 관한 예수님의 말을 신실하게 전하면서 그 칭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됨의 감추어진 의미를 암시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게 하여 신실하게 예수의 마음 표현하였음.





제13장 예수의 자기 칭호 “그 **사람의 아들**” 의 진정성

Jesus

I.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람의 아들”

- ▶ 마가복음
- ▶ 마태복음
- ▶ 누가복음
- ▶ 요한복음

II. 예수의 자기 칭호

- ▶ 세 분류
- ▶ H. Toedt의 주장과 김 세윤의 반론
- ▶ 결론



1. 세 분류

Jesus

人子 문제 최근 토론은 예수님이 이 칭호를 사용했는가
사실 여부 의문시.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칭호는 예수님 입에서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 제기. 이러한 급진적 견해에 찬동하지 않는 학자들 사이에 공관복음서 人子の 말씀들을 세 그룹으로 보통 구분.

- A) 人子の 지상 사역에 관한 말씀들
- B) 人子の 수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들
- C) 人子の 미래적 도래 관한 말씀들



1. 세 분류

Jesus

- ❖ 분류 후 진정성있는 것들로부터 진정성없는 말들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설명 시도.
- ❖ 동일한 방법으로 학자들은 두 개의 정반대 주장 이름.
- ❖ E. Schweizer는 A와 B그룹 몇 말씀 진정성있다고 보나, C그룹 진정성 없다고 배척.
- ❖ R. Bultmann과 G. Bornkamm은 C그룹 몇 구절 진정성있다고 보고, A와 B그룹 배척.
- ❖ 비판적 학자들 다수 이 마지막 의견 채택하고 누가복음 12:8f.으로 논증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마 10:32; 막 8:38 par; 눅 12:8f)

1. 세 분류

Jesus

- ▶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올 人子와 자신을 구별하였다고 보고, 자신을 人子로 호칭 않고 최후 심판 때 예수님과 제자 교제 확인하러 人子が 올 것 예고했다고 결론.
- ▶ C그룹 말씀 중 人子を 예수님과 구별하는 몇 말씀들만 진정성 있다고 주장 (예. 막 14:62 par). A B그룹 말씀들은 진정성 없고, 부활 체험한 초대교회 산물이라 주장.



2. H. Toedt의 주장과 김 세윤의 반론

 Jesus

위 견해를 가장 철저히 주장한 사람은 H.E. Tödt

Tödt 주장 분석 비판하면 다른 학자들에게도
(mutatis mutandis) 적용 가능

Tödt도 누가복음 12:8f.부터 시작, A와B 그룹 말씀들은 예
수님을 人자와 동일시한 초대교회 산물이라 주장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 처형시 그를 버렸으나 부활한 예수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과 새로운 교제 속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고, 그들에게 허락한 예수의 교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 초대교회는 예수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人자로 지칭한 것처럼 人자말씀들 (A와 B그룹)을 창작했다고 주장.



2. H. Toedt의 주장과 김 세윤의 반론

Jesus

이 견해에 반대하여 김 세윤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다 위대한 분을 기대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든 증거는 정반대라고 근본적 반론 제기 후 네가지 문제점 지적.

첫째, 복음서 저자들에게 人子が 예수님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아니었다면, 왜 복음서 저자들은 누가 복음 12:8f.와 같이 예수님과 人子를 구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Toedt의 극복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

둘째, 예수님 권위를 존중해서 그를 人子和 구별하는 말씀들을 간직한 교회가 왜 人子和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말씀들을 만들어 그의 권위를 무시하였는가?



2. H. Toedt의 주장과 김 세윤의 반론

 Jesus

셋째, Tödt는 “예수가 장차 올 人子이다!”라는 것이 최초 기독교론적 깨달음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수록된 초대교회 설교(케뤼그마)에 “예수가 장차 올 人子이다”라는 문장은 고사하고 人子란 용어조차 왜 발견되지 않을까? Tödt의 주장이 옳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같이 “예수는 人子”라는 선포형식은 왜 없을까? 어떻게 교회는 이 결정적 칭호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2. H. Toedt의 주장과 김 세윤의 반론

Jesus

넷째, Tödt에 의하면, 죽음에 넘겨진 자의 위엄 (Hoheit)을 단순히 오는 자의 위엄과 동일시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그랬단다. A와 B그룹 말씀들이 C그룹 말씀들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Tödt의 주장 곧 人子 말씀을 세 그룹으로 정연하게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고, 김 세윤은 人子の 권위가 배척받음과 인정받음의 관점에서 모든 人子の 말씀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바르게 주장. 人子の 권위에 대한 암시적 사상이 통일적 요소라면, 예수님이 세 그룹 말씀들 모두 하지 못할 이유 없다. 모두 한 분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보고 모두 함께 묶어 살펴보는 것이 바른 이해.



3. 결론

Jesus

I.H. Marshall과 김 세윤은 Tödt와 그같은 견해를 받아들이는 R.H. Fuller의 두 전제, 누가복음 12:8f.와 같은 진정성이 있는 말씀들에서 예수는 미래 人子와 자신을 구별했다는 것과, A와 B 그룹 人子 말씀들 모두 초대교회 후기 산물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김 세윤은 人子は 예수의 자기 칭호임을 주장.

C 그룹은 물론이고 A와 B그룹 모든 말씀들도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

